

팔레스타인의 문학 팔레스타인의 작가들

-소설가 김남일 추천

팔연사(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아근대(아시아의 근대/현대를 읽는 시간)

2026.8.29

알림

- - 상업적 이용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단, 외부로 발표할 경우 반드시 공저자(김남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밝혀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근/현대사 연표

- 1917 벨포어 선언(영국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국가 설립 지지)
- 1920 영국 위임통치령 팔레스타인 수립
- 1947 유엔 팔레스타인 분할안 채택
- 1948.4.9 데이르 야신 학살. 5.14 이스라엘 국가 수립. 제1차 중동전쟁과 나크바1956 제2차 중동전쟁(수에즈 위기)
- 1964 PLO(팔레스타인해방기구) 창설
- 1967 제3차 중동전쟁(6일전쟁) 이스라엘, 요르단 서안지역, 시나이반도, 골란고원 점령
- 1972 뮌헨올림픽 참사.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단 이스라엘 선수단 인질 살해
- 1973 제3차 중동전쟁(옴키푸르전쟁, 10월 전쟁)

- 1975 레바논내전 발발
- 1978 이집트와 이스라엘 평화협정 조인
- 1982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사브라 샤틀라 학살. PLO, 튀니지로 추방
- 1987 제1차 인티파다
- 1988 하마스 창설. PLO 튀니스에서 팔레스타인 독립 선언
- 1993 오슬로협정 조인(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가자와 서안지구 통치)
- 1995 라빈 총리 암살
- 1996 오슬로협정 반대파 네타냐후 취임
- 2000 제2차 인티파다
- 2008 이스라엘군, 가자 침공
- 2017 미국,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
- 2023 가자 사태 발발

팔레스타인의 문학 활동

점령하 팔레스티나의 저항문학

1

1948년 팔레스티나가 겪은 제난은 점령하의 팔레스티나에 있어서 아랍사회 구성에 급격한 숫자상의 변화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그 구조에도 근본적인 변동을 야기하였다.

시오니스트에 의해 영토가 점령된 후 팔레스티나에 잔류한 26만 2천명의 아랍인중 4분의 3이상은 농촌 인구였다. 도시 주민중 압도적 다수는 1949년 전쟁 중에 또는 그 직후에 팔레스티나를 버렸다. 이런 현상은 팔레스티나의 아랍 사회 구조에 근본적인 동요를 가져온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라는 것은 정치상 리더십의 중심일 뿐 아니라 대개의 경우 지적 리더십의 기본적인 중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오니스트 침략자가 농촌 지역 특히 갈릴리아, 네게브, 트라이앵글 지역의 아랍 태층에 대해서 군사 지배와 억압적인 법률에 의한 속박을 강화할 때에 그들은 그 곳에서 대두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문학 또는 정치운동에 대해서 일련의 억압을 감행할 기반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점령하 팔레스티나에 있어서 시오니스트의 정치 또는 문학에 아랍대중을 가담시킬 수 있는 수많은 종류의 씨를 뿌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1948년의 팔레스티나 점령 이전 팔레스티나의 아랍문

“팔레스타인 저항작가의 압도적 다수는 상황과의 관련을 통하여 예술활동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들은 민족주의자 조직 내부에 직접 투신하여 싸우기도 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탄압정책으로 괴로워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실제로 민족적 운동에 편입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시인 마흐무드 다르위시가 몇번이나 투옥되었다는 것.....”

갓산 카나파니, <점령하 팔레스타인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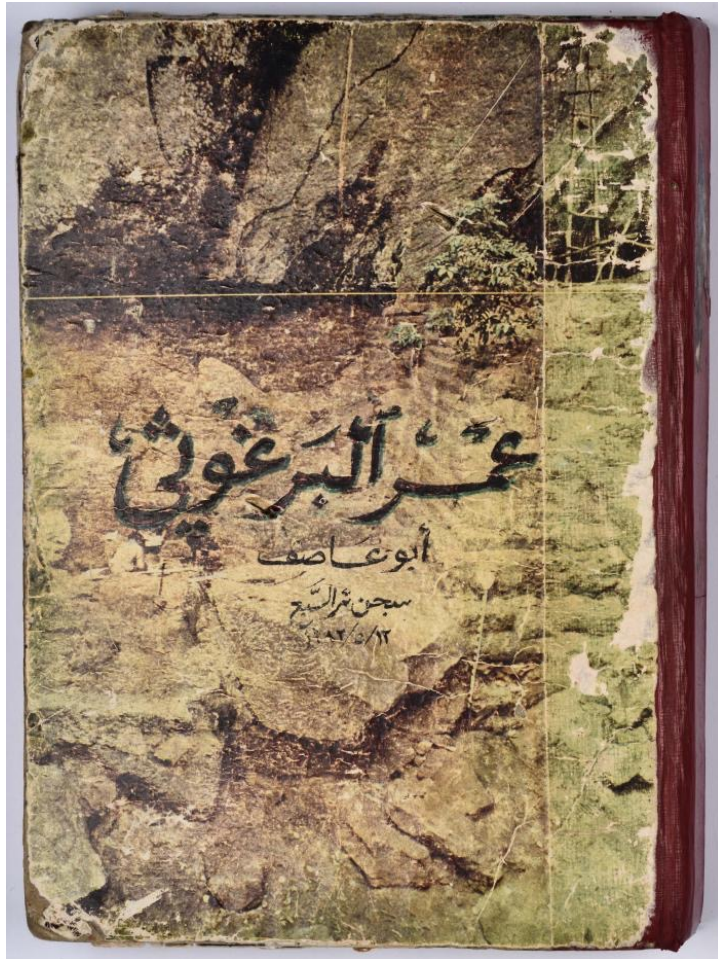
al-Jadeed Magazine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문학잡지(1951년 하이파에서 창간)
 마흐무드 다르위시, 사미흐 알카심, 이밀 하비비 등
 팔레스타인의 전설적인 저항 시인들과 작가들의 문학
 작품과 정치 비평 등을 담아내며 팔레스타인과 아랍의
 현대 문학사에 크게 기여함.

al-Jadeed 는 NEW 라는 뜻

현재 온라인판만 발행

<https://aljadid.com/>



A collection of poems written and compiled by Omar Saleh Al Barghouthi when he was in prison from 1982 to 1993.

It is worth mentioning that Omar Al Barghouthi from Kobar in Ramallah was arrested more than sixteen times and spent more than twenty years in Israeli prisons. Plus, his brother Nael Al Barghouthi has spent the longest time in prison in the world. Omar Barghouthi made this book in Bir al-Sabi Prison using raw materials available in prison, including cardboard and starch and he glued several notebooks together to make this book; which he used for writing poems and kept as a diary.



"Hikayat abu al-Ajab- al-Harajeh
Market Show" Show, 25 August
2017 Taken on the municipal stage in
Ramallah

히카얏은 '이야기'라는 뜻. 여기서는
아랍의 전통적 이야기공연을 의미

작가들

- 압드 알라힘 마흐무드(Abd al-Rahim Mahmud, 1913~ 1948)
- 파드와 뚜간(Fadwa Tuqan, 1917~2003)
- 자브라 이브라힘 자브라(Jabra Ibrahim Jabra, 1919~1994)
- 이밀 하비비(Emile Habibi, 1922~1996)
- 무인 브세이소(Muin Bseiso, 1926~1984)
- 타우픽 자야드(Tawfiq Zayyad, 1929~ 1994)
-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 1935~ 2003)
- 갓산 카나파니(Ghassan Kanafani , 1936~ 1972)
- 사미흐 알 카심(Samih al-Qasem, 1939-2014)

- 마흐무드 다르위시(Mahmoud Darwish, 1941~2008)
- 사하르 칼리파(Sahar Khalifeh, 1941~)
- 야히아 야클루프(Yahya Yakhluf, 1944~)
- 무리드 바르구티(Mourid Barghouti, 1944~2021)
- 자카리아 무함마드(Zakaria Mohammed, 1950~2023)
- 이브라힘 나스랄라(Ibrahim Naṣrallah, 1954~)
- 아다니아 쉬블리(Adania Shibli, 1974~)
- 타밈 알 바르구티(Tamim al Barghuti, 1977~)
- 레파트 알라리르(Refaat Alareer, 1979~2023)

1. 압드 알라힘 마흐무드(1913~ 1948)

- 순교자 시인



툴카룸 출생.나불루스에서 교사 생활.

1936년 총파업과 대반란 이후 자유투사 대열에
합류.

이라크로 건너가 육사 졸업.

유엔 분할결의안 이후 아랍자원군으로 구성된
구세군 합류.

1948년 팔레스타인으로 판견되어 전투 중
포격을 받고 사망

이후 '순교자 시인' 으로 널리 알려짐

1958년 요르단 암만에서 유고시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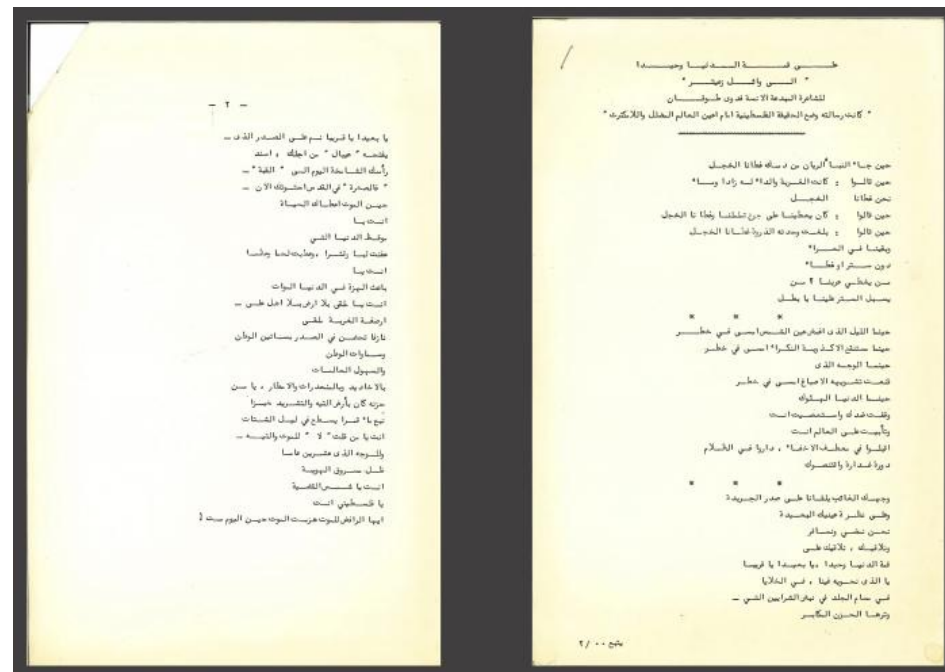
Commemorative Festival for
the Poet Abd al-Rahim
Mahmoud, Nazareth, 1986

2. 파드와 뚜깐(1917~2003)

-밤은 아무리 길다 한들 계속해서 별을 낳고



1917년 요르단강 서안 나불루스 출생.
당대 저명한 시인인 오빠 이브라힘 뚜깐으로부터 시창작 훈련을 받았다. 처음에는 전통적인 운율을 바탕으로 한 낭만적인 시를 많이 썼으나, 자유시 운동에 편승하면서부터는 여성의 경험과 아랍의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비판을 시의 소재로 끌어와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1967년 6월전쟁의 패배에 큰 충격을 받아 민족적 저항에 대한 끈질긴 집념을 시적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에 치중했다. 시집으로 <홀로 세월과 더불어>(1952), 닫힌 문앞에서>(1967), <정치시편>(1980) 등이 있으며, 오빠에 대한 평전 <나의 오빠 이브라힘>(1946)과 자서전 <산 여행, 어려운 여행>(1985) 등도 펴냈다.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아랍을 대표하는 여성시인으로서 카이로의 국제시상을 비롯해 많은 상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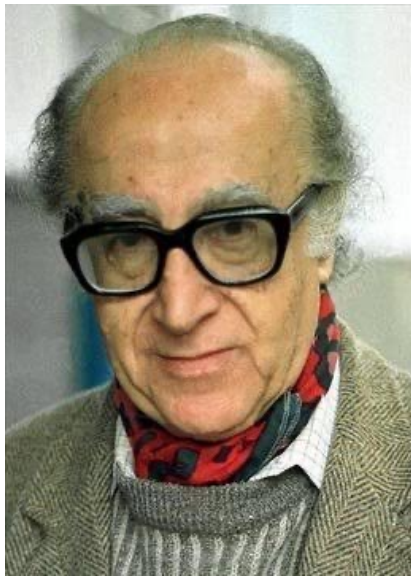


A poem by the poet Fadwa Tuqan about the Shaheed Wael Zuaiter entitled "On the top of the world alone, to Wael Zuaiter"



Sabreen Group with Poet Fadwa Tuqan, 2000

3. 자브라 이브라힘 자브라(1919~1994)



시리아에서 태어난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
작가, 번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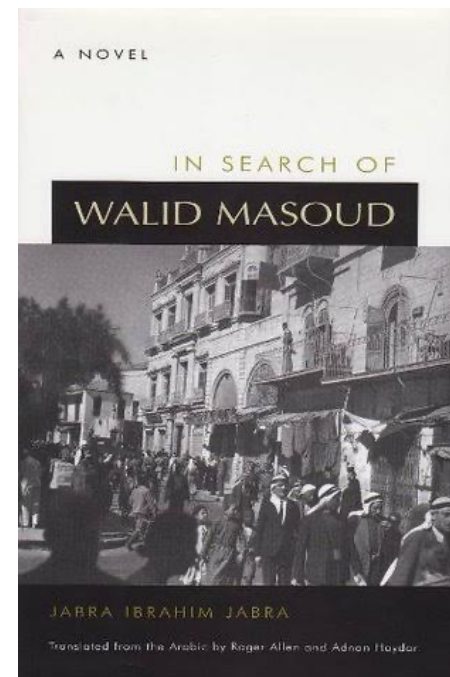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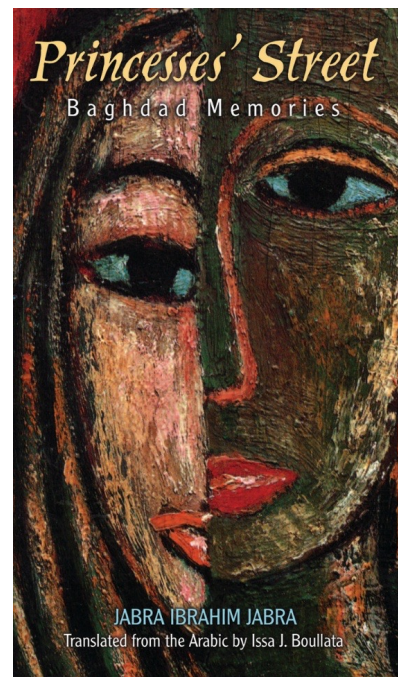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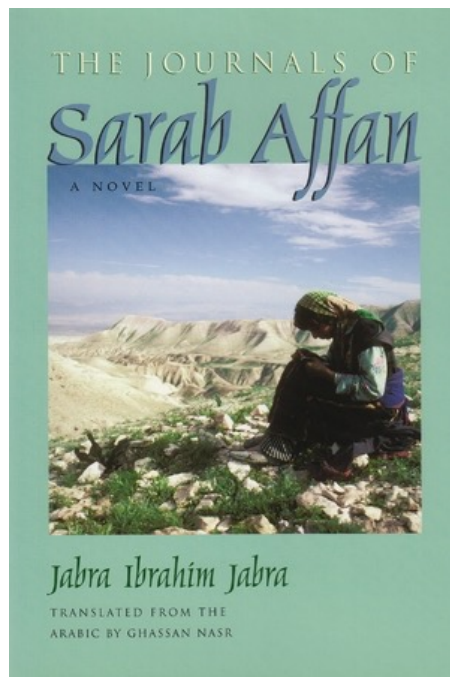
베들레헴과 예루살레에서 수학.

1948년 나크바 이후 바그다드에 정착,
바그다드대학에서 교편을 앉았다.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영문학을 수학.

첫 소설집 <긴 밤의 울음> 이후 많은 소설 발표
특히 장편 <왈리드 마쏘우드를 찾아서>(1978)로
유명

학자이자 번역가로서도 중요한 작품 번역 소개
자서전 <바그다드의 추억>(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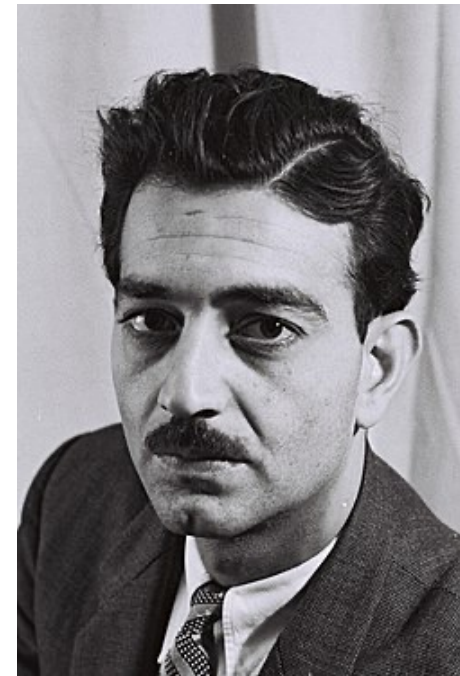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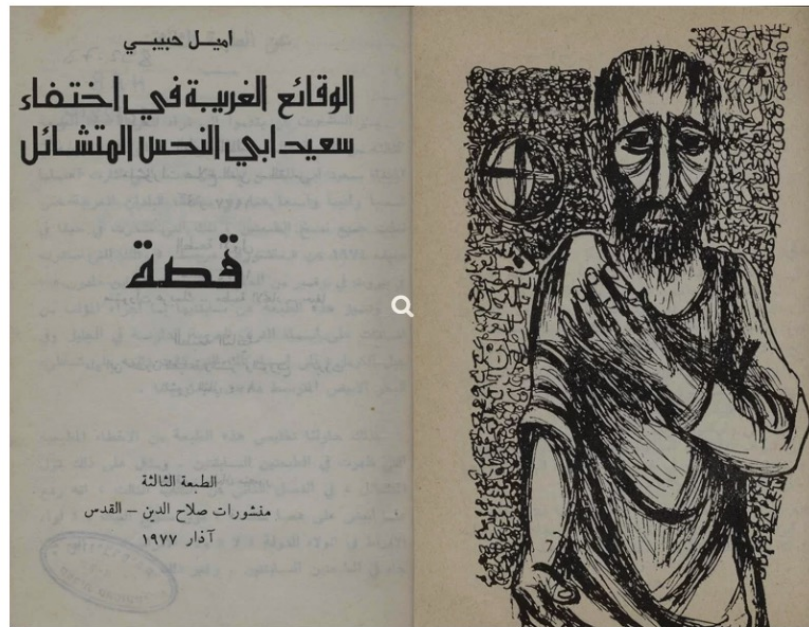
- 자브라 이브라힘 자브라의 소설 『왈리드 마수드를 찾아서』는 아랍세계 소설의 현대성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그 형식은 오늘날까지도 독보적이며 아랍 문학의 특성과 국제 소설의 접점을 보여준다.
- 소설의 주인공은 팔레스타인 은행가이자 바람둥이이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에 맞서 싸우는 반군인 왈리드 마수드로 그는 이라크-시리아 국경 근처에서 사라졌고 그의 친구들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한다. 작가는 왈리드 마수드의 성격이 팔레스타인에서의 성장으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보여주고 그의 격동적인 감정 생활을 자세히 설명한다.

4. 이밀 하비비(1922~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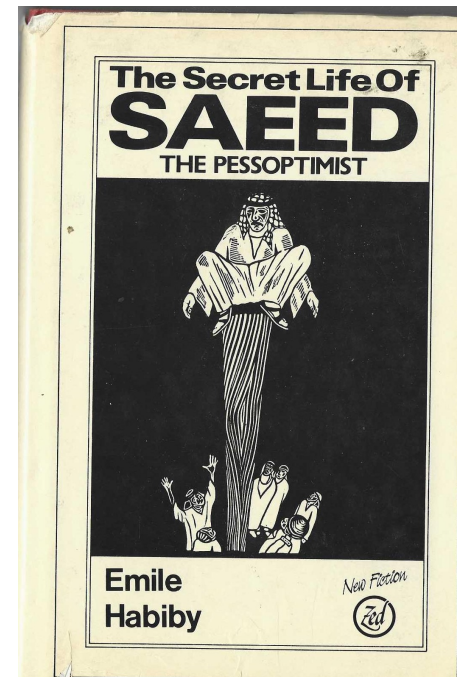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

- 하이파 출생으로 나크바 당시에도 고향을 떠나지 못했다. 건축 및 부두 노동자 생활을 했으며, 이스라엘 공산당에 들어가 정치 활동을 하며 여러 차례 크네셋(의회)에 진출하기도 했다.
- 공산당 기관지인 <알 이티하드> <알 자디드> 등을 통해 문학 활동도 전개하나 본격적인 작가 생활은 1967년 6일전쟁 이후부터였다. 전쟁을 다룬 단편집 <6부작-그 여섯 날>(1969)로 아랍 세계 독자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그의 대표작은 장편 <비관낙관주의자 사이드 아부 앗나흐스의 실종에 얽힌 괴이한 사건들>(1974)



- - 이야기가 시작되는 1948년 전쟁 당시 그(주인공)는 24세의 고등교육을 받은 건장한 체구의 젊은이였다. 때마침 지나가던 당나귀가 대신 총을 맞는 바람에 생명을 건지게 된 그는 표면적으로는 노동자연맹의 식당 종업원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정보원으로 일한다. 평생을 첩자, 밀고자로 왜곡된 삶을 살다가 뒤늦게 민족적 대의에 눈뜨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발견한 가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도 못한다.
- 마지막 장면에서 본인은 외계인에 의해 구원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현실의 부조리와 혼란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병원에서 죽어간 것으로 판명된다. 그는 역사의 가해자이면서도 동시에 피해자이고 희생자임에 틀림없다.(송경숙)

- -하비비는 소설 집필을 통해 하나는 국제사회, 아랍국가, 심지어 디아스포라나 점령지의 팔레스타인 동포들조차 그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나 독자적인 투쟁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존재'로서 방치되는, 즉 외부로부터의 망각, 다른 하나는 아랍계 이스라엘인으로서 살면서 팔레스타인인으로서의 정체성 및 다른 팔레스타인 동포와의 유대감을 상실해 간다는 내부로부터의 망각, 이러한 두겹의 망각에 항거해 왔다. 이때 하비비가 사용한 가장 큰 무기는 웃음이었다.(일어판 역자 후기)

- - 나크바 이후 제가 태어난 땅에서 졸지에 이스라엘 국민이 되어버린 팔레스타인인으로서 이밀 하비비는 그런 현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체험했다. 능히 짐작할 수 있듯이 그의 '입'은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렇더라도 그는 여전히 문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천해 나갔다. 이때 볼테르의 주인공 칸디드가 보여줬던 바와 같은 식의 풍자와 골계는 꽤 훌륭한 무기였다. 칸디드는 "특별한 불행들이 일반적인 선을 만듭니다. 그러니 특별한 불행이 많으면 많을수록 모든 것은 더욱더 선이 되는 것"이라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던 스승 팡글로스를 내세워, 합리적 이성 대신 위선과 편견, 그리고 종교적 맹신이 지배하던 자신의 시대를 통렬히 비꼬고 비틀었다. 나크바 당시 당나귀 덕분에 목숨을 건진 채 '이스라엘 땅'에 남게 된 이밀 하비비의 주인공 사이드 역시 때로는 어리송하게 또 때로는 교묘하게 비꼬고 비틀면서 닥쳐오는 상황을 견뎌 나간다.(김남일)



"Al-Mutasha'il", a Photograph of a Monodrama Performance, al-Kasaba Theatre, 1997

Taken in 1997 at al-Kasaba Theatre, this photograph captures a freeze of "al-Mutasha'il (The Pessoptimist)", a monodrama performance by actor Muhammad al-Bakry based on Mazen Ghattas' adaptation of Emile Habibi's novel "The Secret Life of Saeed: The Pessoptimist".



"Al-Mutasha'il", a Photograph of a Monodrama Performance,
Khalil Sakakini Cultural Centre,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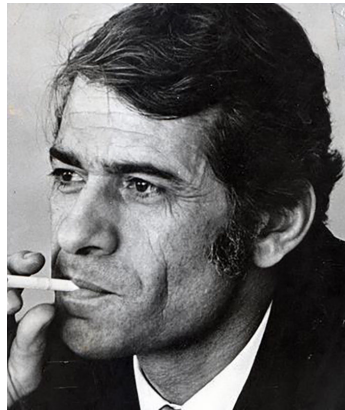


"Al-Mutasha'il", a Photograph of a Monodrama Performance,
Khalil Sakakini Cultural Centre,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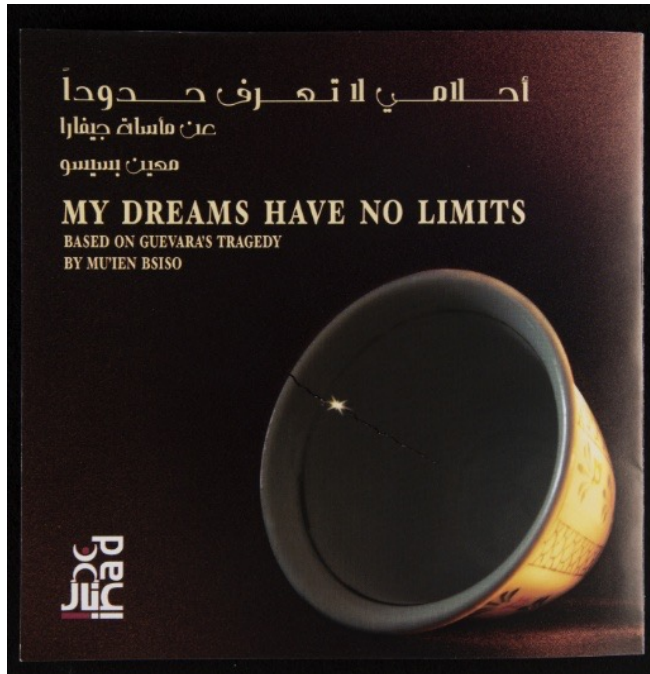
- 소설에서 사이드는 심지어 밀고자로 내몰리기도 한다.
- 오늘날에도 사이드와 같은 처지의 아랍계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5. 무인 브세이소(1926~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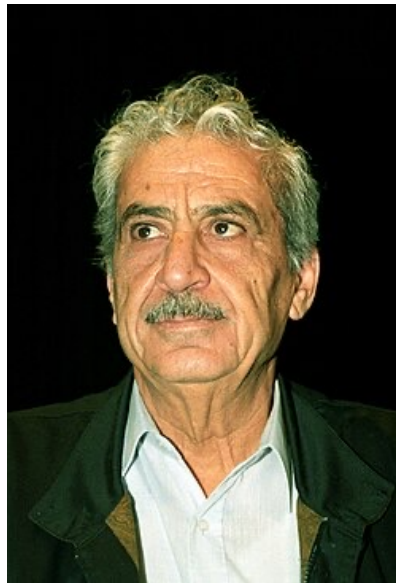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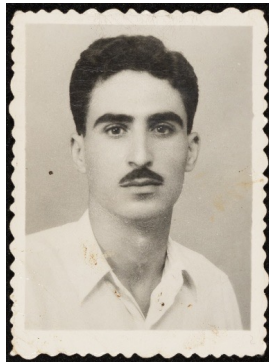
- Mu'in Bseiso also written Mu'in Bseiso was -and remains – one of Gaza's most influential intellectuals and renowned poets. After Israel occupied the Gaza Strip in 1967, he lived in exile for the rest of his life, hopping from one country to another.
- Every phase of Bseiso's literary work carried clues to the struggle faced by Palestinians throughout their modern history, which he echoed in his poems until his passing. His words spoke of resistance, love, torture chambers and naked walls, children coloring on a beach, exile ... oh, the endless exile.
- But Resistance featured prominently in almost everything he wrote.
- "If I fall, comrade, in the struggle, take my place,
- And gaze at my lips as they halt the madness of the wind.
- I have not died ... I am still calling you from beyond my wounds.
- Sound your drums, so that the whole people may heed your call and fight ..." (The Battle)
- Bseiso, finished his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Gaza in 1948. He started publishing his work in the Jaffa-based magazin Al-Hurriya ("Liberty"), where he published his first poems in 1946. In 1948, he enrolled in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and subsequently graduated in 1952. His dissertation was titled "The Spoken or Head Word in Lower Eastern Broadcast Media", discussing the borders between radio and TV on one hand and the printed newspaper media on the other. On January 27, 1952 he published his first work titled Al-Ma raka ("The Battle").
He published several other volumes of poetry: Palestine in the Heart, (1964), Trees Die Standing (1966). He was imprisoned in Egyptian jails in Gaza twice: 1955 to 1957 and 1959 to 1963. In one of them he met his future wife, Sahbaa al-Barbari, one of the first women communists in Gaza.
- Awards:
The Afro-Asian Lotus Prize for Literature.
Recipient of the Palestinian Dir' Al-Thawra or Shield of Revolution.
- He died due to heart failure in London in 1984. His family was denied permission by Israel to have his remains buried in Gaza.



"My Dreams Have No Limites", a Poster

This colour poster features the "My Dreams Have No Limites" play produced by Inad Theatre and written by Mu'in Bsaisu, a deceased Palestinian poet.

6. 타우픽 자야드(1929~1994)



나자렛 출생.

이밀 하비비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공산당원으로 크네셋에서 활동하며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 전개

1954년 처음 체포, 구속된 이후 여러 차례
체포와 구속을 반복했다.

1975년에는 나자렛 시장으로
당선되었고, 이후 죽을 때까지 19년간
시장직을 역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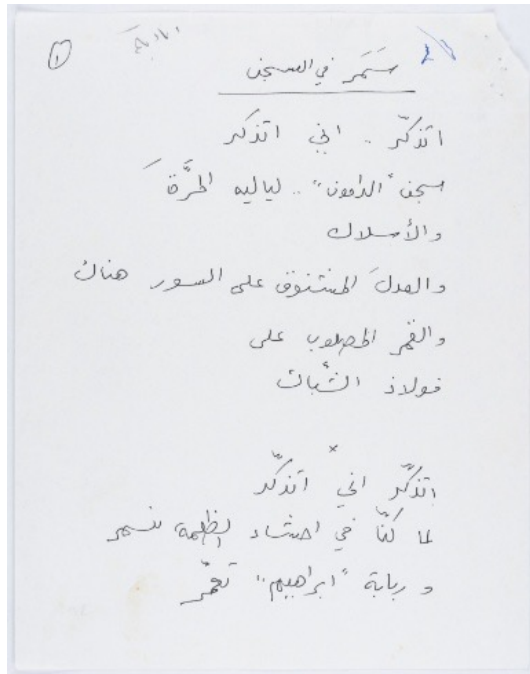
시인으로서 그는 수무드, 즉
팔레스타인의 민족적 가치를 옹호하는
시 창작에 몰두했다.

1994년 교통사고로 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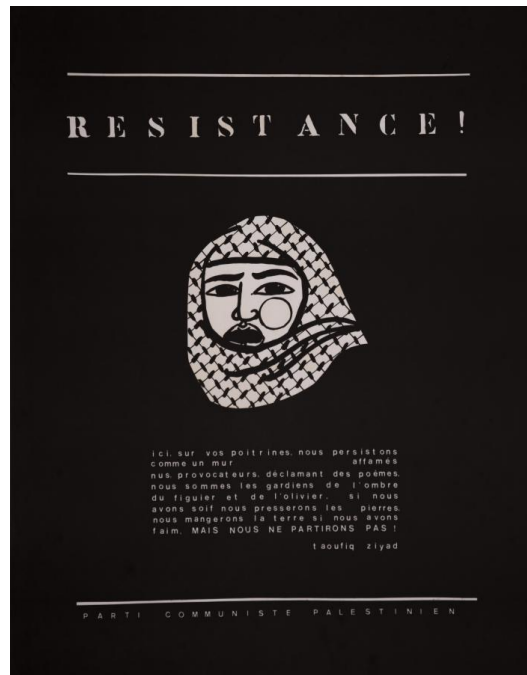
A portrait of poet Tawfiq Ziad

A colour photograph of poet Tawfiq Ziad giving a speech during International Women's Day celebration



A poem entitled "Samar in Prison"

written by the poet Tawfiq Ziad during his imprisonment in the Israeli Prisons and was found in his collection



Resistance, 1985

A poster entitled "Resistance" was issued by The Palestinian Communist Party, features in 1985.

It features an excerpt from Tawfiq Ziad's poem "Here We Will Stay."



"We will never kneel we will not kneel as long as we have a baby that suckles ",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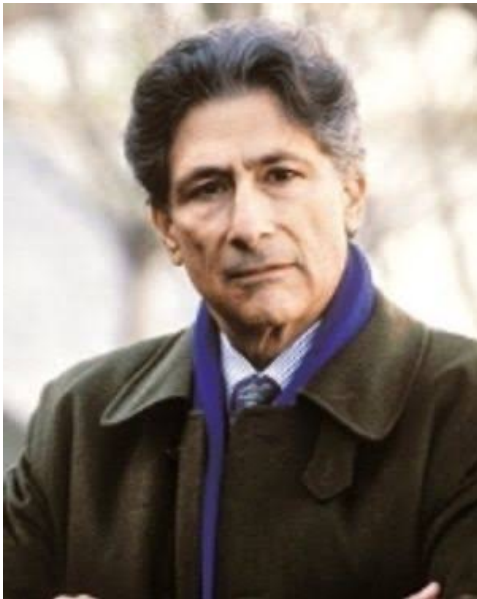
This photograph shows a poster entitled " We will never kneel we will not kneel long as we have a baby that suckles" designed by the artist Burhan Karkutli and a stanza of the poem " Let all the world hear" for the poet Tawfiq Ziad, issued by the Unified Information Office of the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 (PLO) in 1979

DATE CREATED

1979

7. 에드워드 사이드(1935~2003)

-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의 꿈



예루살렘 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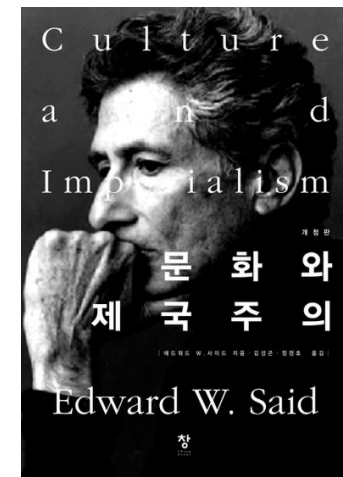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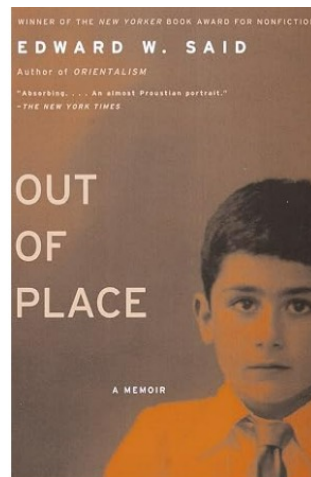
1947년 이집트 카이로로 이주해 공부했고, 1950년대 말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박사학위를 받았다.

1963년부터 콜럼비아 대학교의 영문학, 비교문학 교수를 역임하며 문학평론가이자 문명평론가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특히 동양에 대한 서구의 편견을 지적하고 신랄하게 비판한 <오리엔탈리즘>(1978)을 출간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1999년에 다니엘 바렌보임과 함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아랍의 젊은 음악가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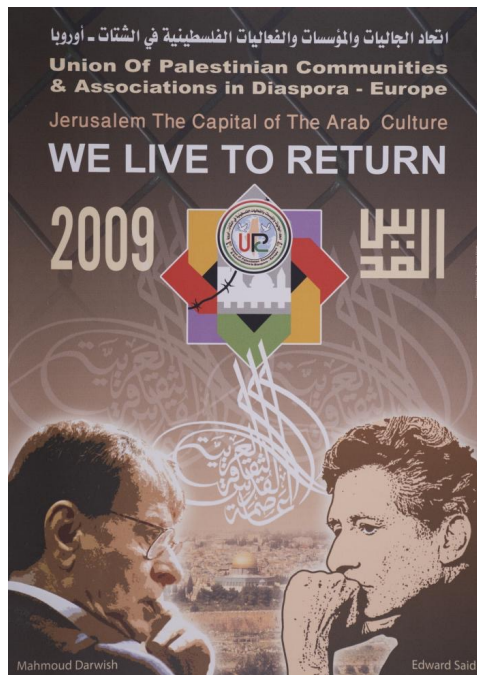
구성된 서동오케스트라(West-Eastern Divan Orchestra)를 공동 설립해 음악을 통한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다.

1992년부터 백혈병으로 투병해오다가 2003년 미국 뉴욕에서 68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https://west-eastern-divan.org/statement-august-2024>



팔레스타인 문화를 대변하는 두 거장 마흐무드 다르위시와 에드워드 사이드

A poster entitled "Jerusalem, 2009" designed by Jamal Al Abta.
It was issued by the Union of Palestinian Communities, Institutions and Activities in the Diaspora - Europe, on the occasion of the celebration of Jerusalem as the Capital of Arab Culture in 2009.

8. 갓산 카나파니(1936~1972)

- 팔레스타인 저항문학의 정점



반영 반시오니즘 운동이 격렬하게 펼쳐지던 1937년 지중해 연안의 고대 도시 아카 출생.

1948년 데이르 야신 대학살을 목격하며 기리아 다마스쿠스로 피난, 이후 시리와는 물론 레바논, 쿠웨이트 등지에서 망명자의 삶을 꾸려간다.

다마스쿠스대학에서 수학.

졸업 후 소설가로서 등단하며 <하이파에 돌아와서> <불별 속의 사람들> 같은 작품을 정력적으로 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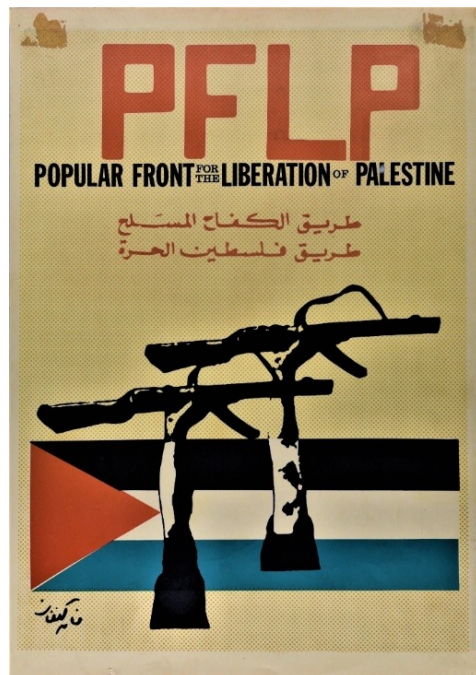
1960년부터 저널리즘에 투신하며,

1969년부터는 PFLP(팔레스타인 해방인민전선)의 대변인.

1979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자동차에 몰래 설치한 폭탄으로 암살당함.

1975년 아시아아프리카작가회의는 그의 문학정신을 기려 로터스상을 수여한다.

- 갓산 카나파니는 마흐무드 다르위시와 더불어 팔레스타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무엇보다 그의 소설은 나크바 이후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는 투쟁의 길이 무엇이며 그것을 찾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 던지는 질문으로 일관한다.(김남일)



"The Path of Armed Struggle", a Poster by the PFLP, 1970

This poster titled "The Path of Armed Struggle" was issued by the 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 (PFLP) in 1970.



The 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 1968

A poster issued by The 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 features artwork by the Palestinian writer Ghassan Kanafani, 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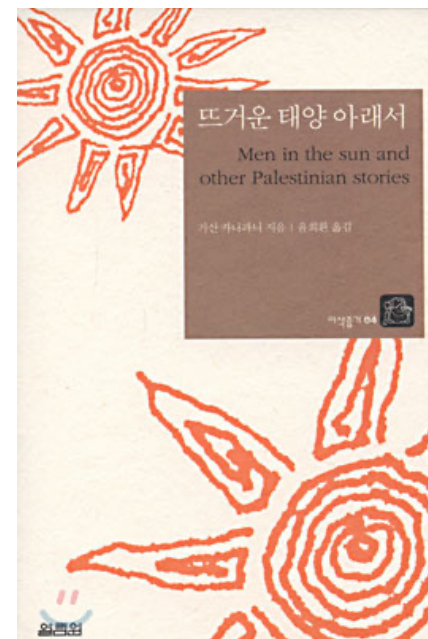


Glory to the Fighters who Destroyed the Fascists Tanks in Al-Wahdat,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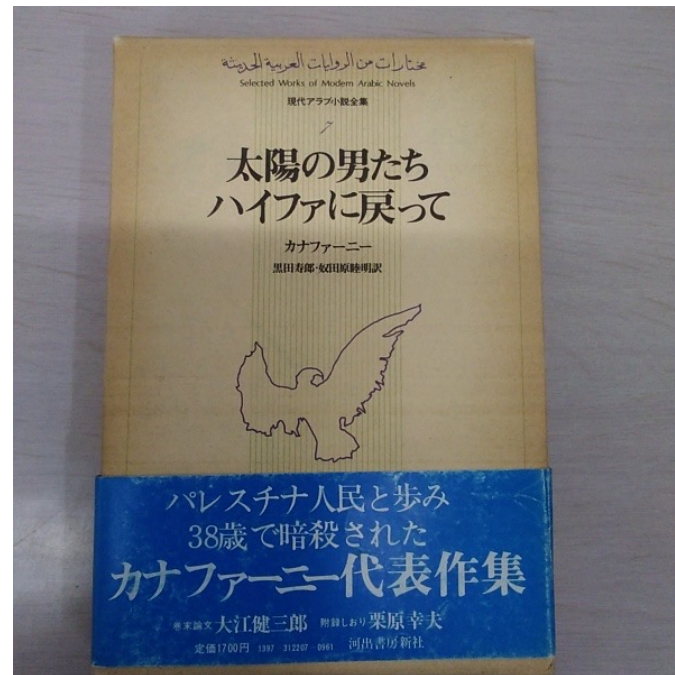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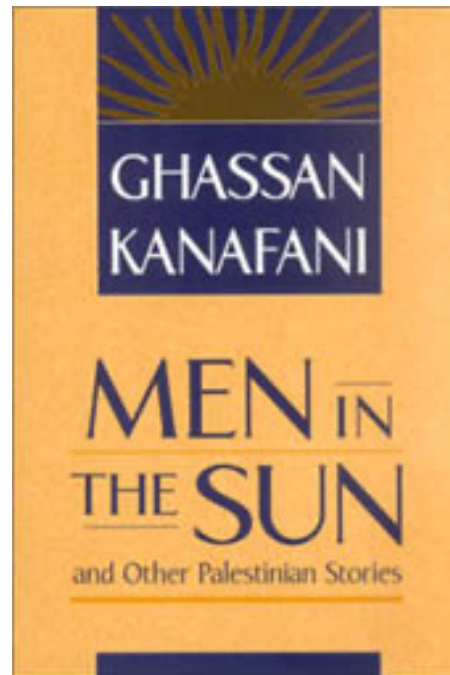
This poster entitled "Glory to the Fighters who Destroyed the Fascist Tanks in the Al-Wahdat," features artwork by the Palestinian writer Ghassan Kanafani. It was issued by The Popular Front For the Liberation of Palestine in 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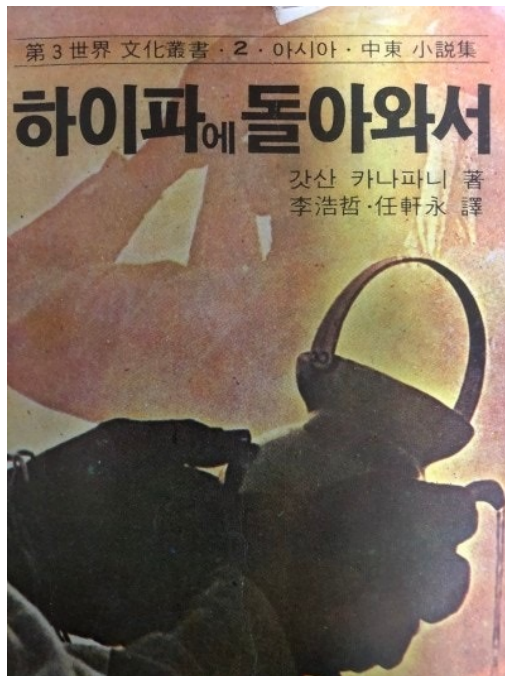


김종철, 천지현 공역, 창작과 비평사, 1996



윤희환 역, 열림원,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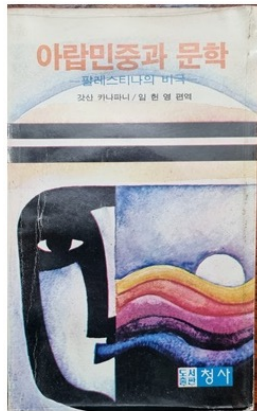


도우브라는 이름의 이스라엘군 병사는 자신을 찾아온 생부 생모 앞에서 이렇게 소리친다.

“이보세요, 20년이 흘렀습니다. 아들을 되찾기 위해 그동안 내내 뭘 하셨습니까? 제가 만약 당신이었더라면, 저는 아들을 위해 총을 들었을 겁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악한 거예요. 약해빠졌다구요!”

하이파에 돌아와서 : 아시아.中東小說集

이호철, 임헌영 공역, 태창문화사, 1979.



아랍민중과 문학 :
팔레스티나의 비극
갯산 카나파니 著; 임헌영
번역, 청사, 1979

*중편 <하이파에
돌아와서>와 산문 <점령하
팔레스타인의 저항문학>이
수록되어 있다.

- 일어판에서 중역을 한 게 분명한 책
<아랍민중과 문학>(임헌영 편역, 청사, 1979)을
언제 구입했는지 기억에 없다. 그러나 거기
실린 '점령하 팔레스티나의 저항문학'을
읽고서는 온몸의 실핏줄 하나까지 곤두섰다.
그 글을 쓴 갯산 카나파니의 중편소설
'하이파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건
내가 만난 최초의 아랍소설이었을 테지만,
놀랍게도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의 처지를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었다.

- [김남일의 내 인생의 책]④ 하이파에 돌아와서 -
갯산 카나파니, <경향신문> 2021.10.20



A Scene from the "al-Ama Wal-Atrash" Play

Undated, this photograph shows a scene from the "al-Ama Wal-Atrash (The Blind and the Deaf)" play, originally derived from a novel by Ghassan Kanafani by the Wonder Box Theatre troupe and Balaleen (Balloons) troupe and directed by Akram al-Malki. Its first performance was on 30 May 1986 in al-Hakawati Theatre in Jerusalem after the text was edited and performed by several actors.



"On the 25th Anniversary of the Murder of Palestinian Writer Ghassan Kanafani", a Newspaper Clipping, 8 July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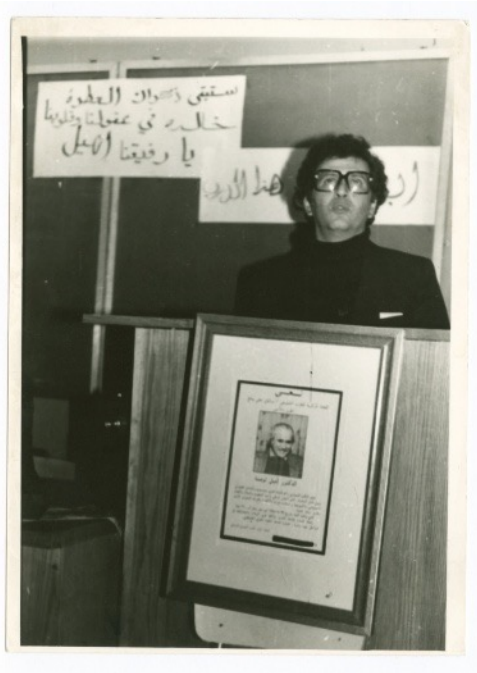
this document shows a newspaper clipping from an issue of ad-Dustour Newspaper titled "On the 25th Anniversary of the Murder of Palestinian Writer Ghassan Kanafani", where the Palestinian Information Center reviews what Palestinian writers and journalists said about the novelist Ghassan Kanafani, 25 years after he was murdered, including Adel Tartir, who emphasized that Kanafani was present in their theatrical work despite his absence, saying that the Wonder Box Troupe performed plays he had written despite his absence, including "the Blind and the Deaf," noting that much of Ghassan Kanafani's literary work can be presented in thea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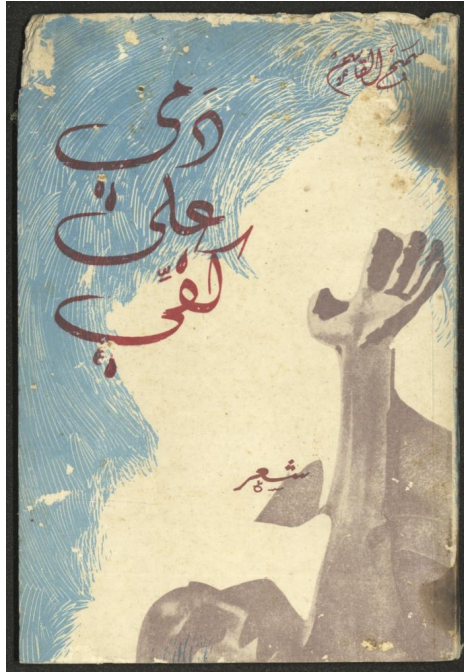
The Ghassan Kanafani Summer Camp Activities, Handalah Cultural Center

A photograph of children participating in the Ghassan Kanafani Summer Camp activities, which was organized by the Handalah Cultural Center and held at the Saffa Elementary Boys School.

9. 사미흐 알 카심(1939~2014)



트랜스요르단 에미리트 (현재 요르단)의 북부 도시 자르카 출생. 당시 그의 아버지는 압둘라 왕의 아랍 군단에서 복무 중이었다. 알-카심은 상부 갈릴리의 라메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나중에 나사렛에서 중등학교를 졸업했다. 그의 가족은 나크바 당시 라메를 떠나지 못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던 그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활동 때문에 해고되는데, 그후 여러 직업을 거쳐 1960년대부터는 공산당계 언론 알-이티하드와 알-자디드에서 일했다. 어린 시절부터 시를 써온 그는 19세때 첫 시집인 《태양의 여왕들》을 펴냈고, 1984년까지 6권의 시집을 출판했다. 그의 시는 일반적으로 비교적 짧으며 대중적 호소력이 강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권리 옹호와 정부 정책 반대 등 정치 활동으로 여러 차례 투옥된 바 있다.



"My Blood On My Hand", a Poetry Collection by Samih al-Qasim

Found in the Nimr Murqus Collection, this document shows a poetry collection by Samih al-Qasim titled "Dammi Ala Kaffi (My Blood On My Hand)", which was printed at al-Hakeem Offset Press in Nazare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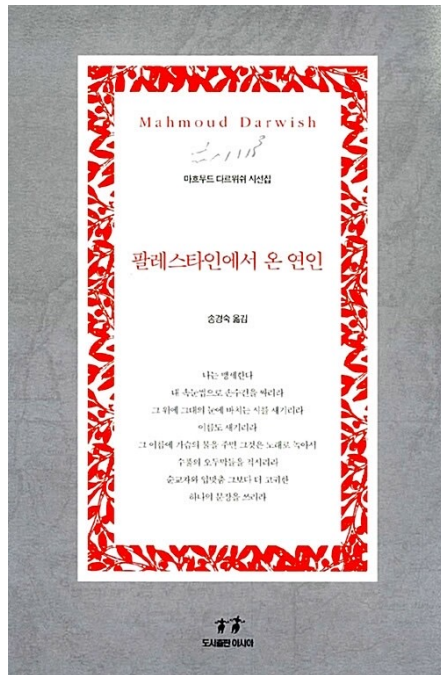


"The Dictionary of Shaheeds", a Poem by Samil al-Qasim, 30 June 1989

Published on 30 June 1989, this document shows the poem "Mo'jam ash-Shuhada' (The Dictionary of Shaheeds)", which Samih al-Qasim wrote lamenting shaheed Omar al-Qasim.

10. 마흐무드 다르위시

-팔레스타인에서 온 연인



1941년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났다. 1971년 이스라엘 점령지가 된 교향을 떠나 튀니지, 카이로, 니코시아, 파리 등지를 떠돌며 창작 및 정치 활동을 했다.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에 가담해 활동하면서 잦은 감금과 투옥을 당했다. 1996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으나 이스라엘 당국이 고향집으로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아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자치 지구단 요르단 강 서안의 라말라에서 살고 있다. 십대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여 1960년 첫 시집 <날개 없는 새>를 펴낸 이후 <올리브 잎새들>, <팔레스타인에서 온 연인>, <낮선 여인의 침대> 등 30여 권의 시집과 산문집을 출간했다. 아시아아프리카작가회의가 수여하는 로터스 상을 비롯하여 레닌 평화상, 래넌 재단이 수여하는 문화자유상과 프랑스 정부가 주는 예술문학 훈장 등을 받았다. 2007년 한국에서 시선집 <팔레스타인에서 온 연인>을 펴냈다. 2008년 사망했다.



Saméh al-Qassim and his brothers; Nadém and Sámi, with
Mahmoud Darwish

The photo was taken while they were having lunch before Mahmoud's flight to
Moscow(1970)



A photo of Saméh al-Qassim, Muin Bseiso, and Mahmoud Darwish
A photo of Saméh al-Qassim, Muin Bseiso, and Mahmoud Darwish at the Arab-American
Conference in Minneapolis - USA



친구이자 동료작가인 이밀 하바바의 장례식에 참가한
마흐무드 다르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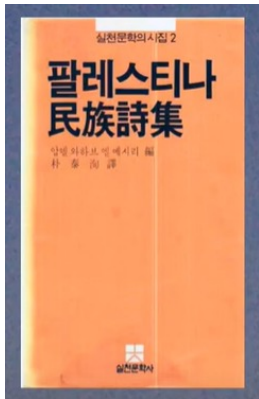
Mahmoud Darwish evening in Nazareth in 2000

A colour photograph of the evening of Mahmoud Darwish in Nazareth in 2000. The evening was organized by the municipality of Nazareth under the chairmanship of Ramiz Jeraisi.



"The Land by Mahmud Darwish", A Painting by Muna as-Su'udy, 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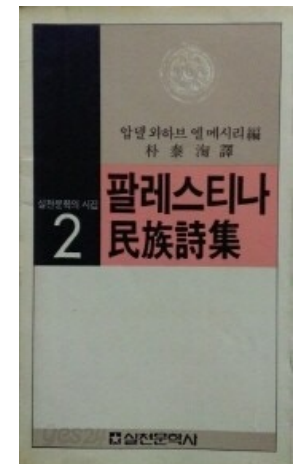
Found in the "Homage to Mahmud Darwish" collection of 7 paintings made and signed in 1979 by Jordanian-Palestinian artist Muna as-Su'udy, this colour painting, titled, "The Land by Mahmud Darwish", was made between 1977-1980 as a tribute to Palestinian poet Mahmud Darwish and a commemoration of his poems. The painting includes parts of the poem scattered all around.



팔레스티나 민족시집

압델 와하브 엘 메시리 편, 박태순 역 실천문학사, 1981

<마흐무드 다르위시 목차>
 팔레스티나에서 온 연인
 돌아갈 때를 기다리며
 나의 아버지
 할아버지께
 금지와 분노
 장미 그리고 사전
 알파타 병사들에게
 희망에 대하여
 희망 제18호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나의 조국은 당신의 이마, 그러니 내 말 좀 들어 주십시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울타리 뒤

잡초처럼,

내쳐진 비둘기처럼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가련한 달로

나뭇가지 사이에서 구걸하는 별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 멋대로 슬퍼하도록

그리고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나의 감옥들 그 채광창들 위로,

태양을 쏘아 붓는 그 손으로

그리고 언제나 나를 불태워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내 것이라면

당신이 나의 돌들 나의 올리브나무들

나의 창문들 ... 나의 진흙을 미칠 듯이 사랑하기에!

나의 조국은 당신의 이마, 그러니 내 말 좀 들어 주십시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 “우리는 구제불능의 병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희망이라는 병통입니다. 해방과 독립에 대한 희망. 우리가 영웅도 아니고 희생자도 아닌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일상에 대한 희망.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가는 희망. 임산부가 군인들의 체크포인트 앞에서 사산아를 낳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살아있는 아이를 낳는 희망. 시인들이 피가 아니라 장미에서 붉은색의 아름다움을 보는 희망. 이 땅이 사랑과 평화의 땅이라는 원래 이름을 되찾는 희망.” (마흐무드 다르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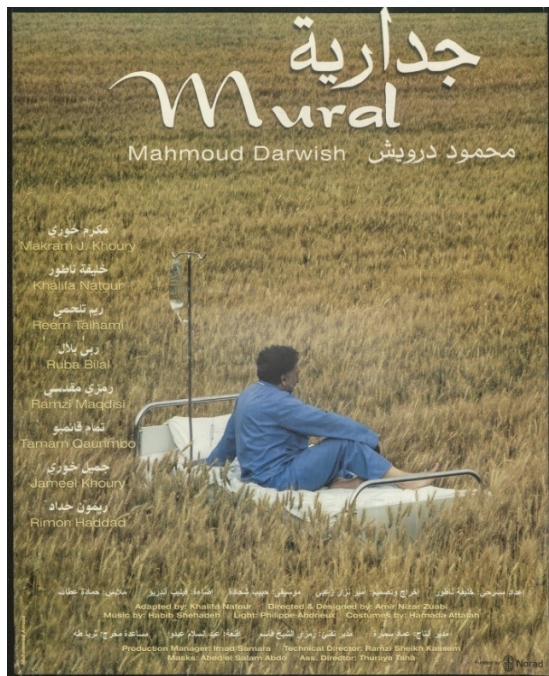






Al-Ahali Newspaper, Issue no. 27, 18 April 2002

Printed in Arabic in Sakhnin, this 13-page document shows issue no. 27 of al-Ahali Newspaper featuring a few headlines including, "The Israeli Invasion of Palestinian Cities", "The American Secretary of State Powell Returns Without Forcing a Cease-Fire", "Marwan Barghuthy is Under Arrest", and "A New Poetry Book by Mahmud Darwish Entitled "A State of Siege," Its Proceeds Support the Intifada".



"Mural", a Poster for a Play Based on Mahmud Darwish's Book of the Same Title

Issued by el-Hakawati Theatre, this poster entitled "Mural" promotes a play based on Mahmud Darwish's book of the same title published in 1999. Directed by 'Amir Nizar Zu'by and produced by Khalifeh Natur, the play tells the story of a poet on his deathbed wrestling his death, his poetry, and the fact of disappearing for good. The play features Mukarram Khury, Khalifeh Natur, Rim Talhamy, Ruba Bilal, Jamil Khury, Raymon Hadad, Ranya Tahan, and Ramzy al-Ju'beh as actors.

11. 사하르 칼리파(1941~)

- 이중의 굴레를 물리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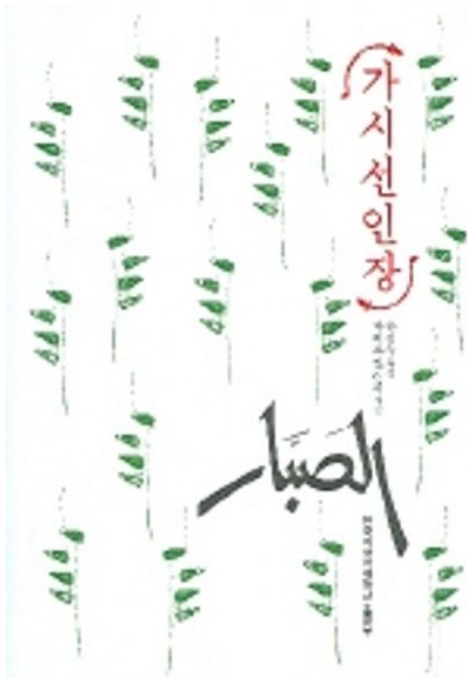
사하르 칼리파는 1941년 요르단 강 서안의 나블루스 시에서 출생하였다. 어린 나이에 아랍의 전통적인 형식에 따라 소위 '장님 결혼'을 하였고, 13년간의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청산한 이후에는 여성 운동과 소설 쓰기에 전념했다. 1998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여성학 및 미국 문학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나블루스 시와 가자 지역의 여성문제 연구소에서 일했다.

주요 작품으로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의 노예가 아니다>(1974), <가시 선인장>(1976), <해바라기>(1980), <실재하지 않는 여인의 고백>(1986), <바훗 싸하>(1990), <유산>(1997), <형상, 성상, 그리고 구약>(2002) 등이 있다. 그녀의 책은 히브리어, 이탈리아어, 불어, 독어, 네덜란드어, 영어 등 많은 외국어로 번역·출판되었다. 우리나라에도 <가시 선인장>(송경숙 역, 2005) 등 여러 권이 번역·출판되어 있다. 2006년 <형상, 성상, 그리고 구약>으로 아랍문학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나킵 마흐푸즈 문학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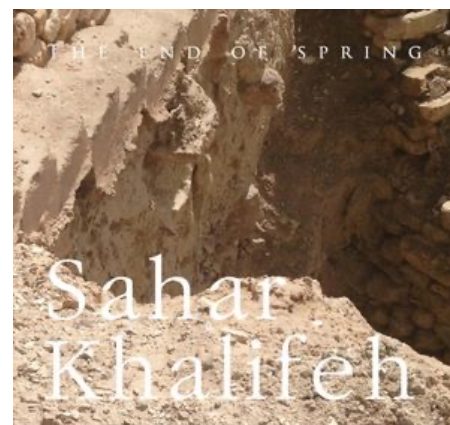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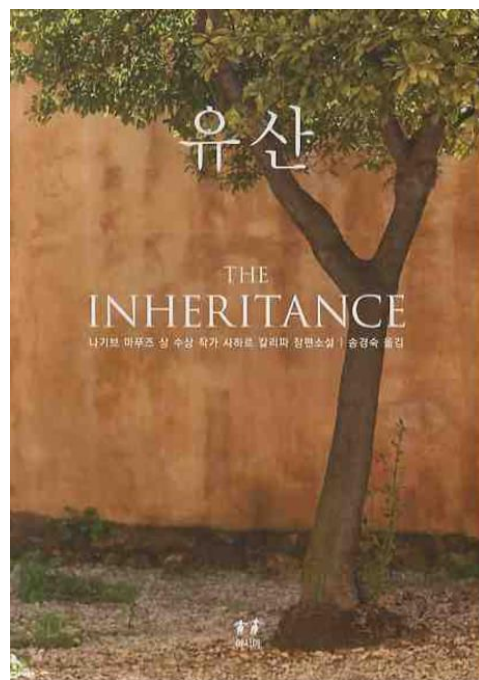


**팔레스타인 소설가 칼리파
제2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받아(2019)**

서안지구 나블루스 출생의 사하르 칼리파는 어린 나이에
원치 않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혼 후 비로소 자기 생의
주인으로서 세상에 우뚝 선다. 그녀의 뒤늦은 글쓰기 역시
이스라엘의 점령 체제와 완고한 아랍적 가부장제를 향한 두
겹의 도전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출세작 <가시 선인장>은 1967년 6월 전쟁에서 아랍 측의 패전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점령 아래 놓이게 된 1970년대 초의 요르단 강 서안의 나블루스 시를 배경으로 한다. 소설은 점령이 팔레스타인 사회에 가져다 준 구조적 변화와 그 변화에 대응하는 인물들의 다양한 사회의식과 행동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한 권의 소설로 그녀는 향토를 상실하고 이스라엘 점령 아래 신음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분노의 일상을 외부세계에 생생히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작품이 비단 억압적인 점령 현실을 폭로하고 고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그녀가 민족해방운동에 관심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 관심은 아랍사회의 가부장적 현실이 빚어내는 모순을 드러내는 작업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자들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는 탈식민주의 글쓰기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고도 하겠다.



뜨거웠던 봄

사하르 칼리파 지음 | 김수진 옮김

책세상
KAPRIS



사하르 칼리파 지음 | 백혜원 옮김

구약

THE IMAGE, THE ICON, AND THE COVENANT

책세상
KAPRIS

- 사하르 칼리파는 스스로 밝히듯 “사람들이 앞 다투어 혁명의 대가로 청춘과 피를 바치지만 혁명은 내부로부터 부식되며, 꿈이 사라지고 거리의 박동이 느슨해져 죽음이 다가오는 현실”에 대해 쓴다. 그것은 당연히 논픽션과 픽션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줄타기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세부에 함몰되는 대신 팔레스타인 사회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파노라마의 시선을 견지한다. 그 과정에서 민족해방운동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젠더의 불평등 또한 여과 없이 드러나는바, 사하르 칼리파는 여성 하위주체로 하여금 그들이 겪는 이중 삼중의 상실을 말하도록 끊임없이 용기를 북돋워준다. 사하르 칼리파의 문학이 아랍의 현대문학사에서 지니는 어떤 돌출한 위치가 있다면, 그 결정적인 근거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김남일,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추천사)

- - 세 번째 비극은 내가 혼인 관계에 있던 기간에 일어난 1967년 전쟁의 패전이였다. 이 패전을 계기로 나는 아랍의 정치적 패배라는 것이 문명적 패배의 필연적 결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1967년의 패전이 찢기고 상처가 났기 때문에 치료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 없는 만신창이의 나무에서 맺힌 열매라는 사실을 아주 똑똑히 보았다. 안에서 패배한 자에게 승리란 없는 법이다. **자신의 문명 내부에서 패배한 사람은 외부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 외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려면 내부에서 시작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의 제반 문제들, 특히 위정자들의 부패,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 가정과 학교와 마을에서의 인간 교육의 부재 등을 치유하는 것으로 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하르 칼리파, <나의 삶과 글>, (사)민족문학작가회의(현 한국작가회의) 제13회 세계 작가와의 대화, 2006년 11월 21일)

12. 무리드 바르구티(1944~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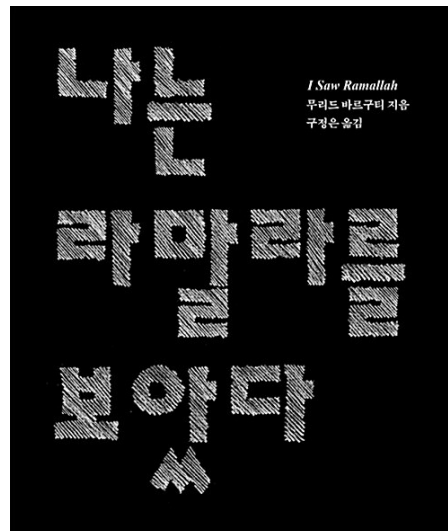
- 정치없는 망명자의 문학



1944년 7월, 팔레스타인 라말라 부근의 데이르 가사나에서 태어났다. 이집트 카이로에 유학해 카이로 대학에 다니던 중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면서 고향에 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이집트 여성과 결혼해 카이로에 정착했으나 1977년 이스라엘과 관계 개선을 추진하던 이집트의 팔레스타인계 추방 정책으로 카이로에서도 쫓겨나 유럽과 중동 곳곳을 떠돌았다. 쿠웨이트에서 교사로 일한 적도 있고, 헝가리의 팔레스타인계 '방기구(PLO) 대표부에서 일하기도 했다.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두 곳에서 쫓겨난 '이중의 난민'의 삶을 담은 시와 에세이들을 레바논의 <알아다브>와 <마와키프>, 이집트의 <알카티브>와 <알아흐람> 등 아랍권 여러 매체에 발표했다. <한밤>(Muntasaf al-Lail)을 비롯해 12권의 시집과 에세이집 등을 냈다.

1993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오슬로 평화협정으로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일시 귀국이 허용되자, 1996년 추방된 지 30년 만에 고향인 라말라를 방문했다. 이 방문을 소재로 '팔레스타인 디아스포라'의 아픔을 그린 <나는 라말라를 보았다>(Ra'aytu Ram Allah)를 1997년 카이로에서 출간했다. 이 책으로 아랍권 최고의 문학상 중 하나인 '나기브 마흐푸즈 문학상'을 수상했다. (알라딘 소개)



우리가 보지 못했던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추방을 가장 잘 묘사한 실존적 기록 중의 하나" 에드워드 사이드

● 우리시대의 지성, 팔레스타인 출신 석학 에드워드 사이드 추천사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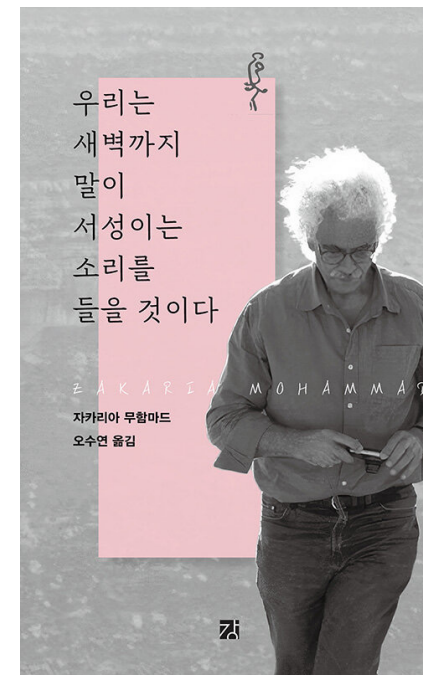
영마니타스

- 망명자로서 바르구티는 떠나는 일에 익숙했다.
- “나는 화초들에게 햇빛과 공기와 우정을 주고는 떠난다. 나는 늘 떠나야 한다.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내 물건들과 아무 감정 없이 이별하는 데에는 익숙하다.”
- 늘 떠돌아야 하는 그는 말하자면 장소가 아니라 시간 속에서 살았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
- 이런 장면도 있다.
- - 아파트 전화벨이 울렸다. 무니프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파힘이 오늘 베이루트에서 희생됐어.”
- 카타르에 있던 무니프는 미국에 있는 내게 전화를 걸어 베이루트에서 숨겨 쿠웨이트에 묻힐 파힘의 죽음을 알리고 데이르 가사나에 있는 내 외할머니 움아타와 나볼루스에 있는 파힘의 외할머니 요르단에 있는 우리 어머니에게 어떻게 알릴지를 의논하고 있다. 라드와와 나는 로마를 거쳐 카이로로 돌아가는 항공권을 확인해 보았다.

13. 자카리아 무함마드(1950~2023)

- 탱크가 아니라 장미를

- 본명은 다우드 마흐무드(Daoud M. E. Mahmoud).
- 1950년 나불루스 출생. 이라크의 바그다드대학에서 아랍어학 전공. 1976년 이후 베이루트, 암만, 다마스쿠스 등지에서 자유기교가로도 활동. 1986년부터는 시리아, 키프로스, 요르단과 팔레스타인 등지에서 신문, 잡지의 편집자로 일했다. 팔레스타인 문화센터인 사카키니 센터의 운영위원 역임. 자카리아는 자살폭탄 운동에 대해서 팔레스타인 언론에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이슬람 율법회의에 회부되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다.



- 시집으로 [마지막 시들](베이루트, 1981), [손으로 만든 물건](Hand crafts, 런던, 1990), [아스카다르를 지나가는 말](The horse passes Askadar, 런던, 1991), [햇살](암만, 2001) 등이 있으며, 장편소설 [빈 눈동자](라말라, 1996), [자전거 타는 사람](암만-카이로, 2003), 비평집 [팔레스타인 문화론](라말라, 2003) 등과 다수의 아동을 펴냈다. 2004년 민족문학작가회의가 주최한 제10회 세계작가와의 대화 겸 제1회 아시아 청년작가 워크숍에 참가했다. 2020년 시선집 <우리는 새벽까지 말이 서성이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를 한국에서 번역 출간했다. 2023년 팔레스타인 라말라에서 사망했다.



- - 팔레스타인 시가 점령에 대해 부지런히 쓰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 점령군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초소는 어느 길에나 있었지요. 감옥은 수감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 인구의 20퍼센트가 감옥을 한번쯤은 경험했습니다. 생각만 하면 당장이라도 점령과 탱크에 대해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 하지만 결국 우리는 탱크들이 우리의 시 아젠다를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나쁜 일입니다. 그러자 우리 시가 갑자기 탱크를 걷어차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시는 탱크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적의 탱크가 우리 시의 아젠다를 결정하도록 놔두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2004년 민족문학작가회의 주최 제10회 세계작가와의 대화 겸 제1회 아시아청년작가 워크숍. 6월 30일 광주 아시아문학 연대의 밤, 서강목 역)

- 이주

- 그들은 모두 갔다
- 가슴께까지
- 풀들이 자라는
- 북쪽 땅을 향하여
- 그들은 자식들의 찢어진 옷가지와
- 천막줄 거는 나무말뚝을 남기고 떠났다 그들은 모두 갔다
- 나귀등에 아이들을 태우고
- 젊은이들은 광주리와
- 양떼의 방울을 가지고 갔다

- 검은 구름 한점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길을 가면 갈수록
- 그들의 그림자는 점점 자라났고
- 그림자는 떠나온 천막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개들은 짚지도 않고
- 무리들보다 앞서 걸었다
- 개들의 눈은 사람들 그림자가
- 어둠의 강이 되어
- 뒤로 달려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번역 서강목)

• <장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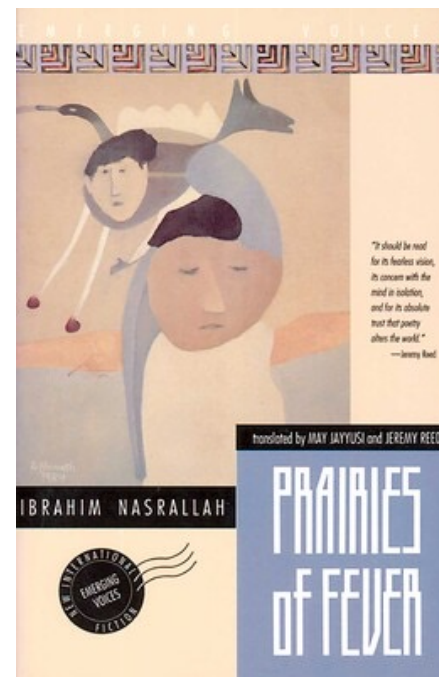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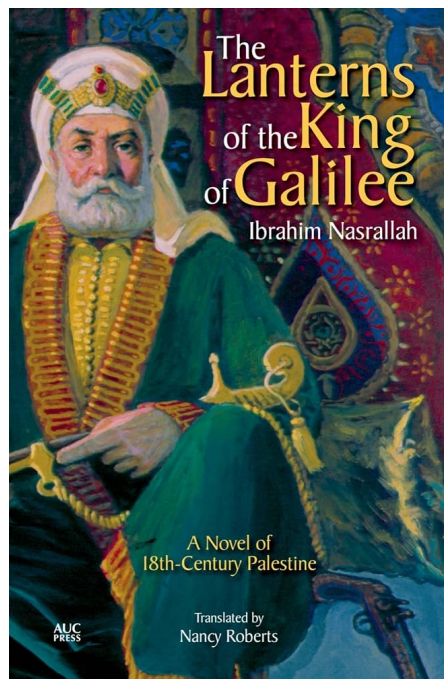
- 나 이 장미를 원하네.
- 박살나버린 장미를,
- 마치 멋진 도자기를 주먹 한방으로 산산 조각내듯
- 참살되어버린 장미를,
- 마치 칠면조의 내장을 뽑고 꼬챙이로 꿰어버리듯
- 절단된 장미를,
- 마치 부싯돌로 소년에게 할례를 하듯
- 나 이 장미를 원하네.
- 내 온 몸과 영혼 위에서
- 물질과 고름으로 화농해가는 장미를,

- 나 이 장미를
- 처박아버렸으면 하네.
- 나의 멀어버린 한쪽 눈 썩은 눈구멍 속으로,
- 나 이 장미를
- 별들로부터 은하수를 지워내는 일에
- 사용되길 원하네.
- 무엇보다도 나 이 장미를
- 구름 속으로 던져 올려
- 폭발해버리길 원하네.(번역 서강목)

14. 이브라힘 나스랄라



- 요르단에서 태어난 팔레스타인 시인이자 소설가. 예루살렘에서 강제 이주당한 팔레스타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요르단의 난민촌에서 보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암만으로 돌아온 후, 2006년까지 언론 및 문화계에서 활동하다가 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시집 15권, 소설 22편을 출간했다. 그의 소설과 시집은 영어, 페르시아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등으로 번역 출간되었다. 그의 소설 『열병의 초원』은 가디언지에서 아랍 세계를 배경으로 아랍인 또는 비아랍인이 쓴 가장 중요한 소설 10선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제1회 예루살렘 문화창작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설 『제2차 개 전쟁』으로 2018년 부커상(아랍어권)을 수상했다. 그의 소설은 가장 영향력 있는 아랍 소설로 손꼽힌다.



15. 아다니아 쉬블리



아다니아 쉬블리
Adania Shibli
팔레스타인



발췌문

그나저나, 내가 군인이나 검문소를 언급했을 때, 가령 이곳에서 정상적인 삶은 점령하에 있다고 말할 때, 어떤 불편한 비밀을 드러내지 않았기를 바란다. 총성, 군 순찰차의 사이렌, 때로 전투기와 헬리콥터와 폭격, 이어지는 구급차 사이렌, 몇 분 후 어김없이 등장하는 텔레비전 화면의 긴급 뉴스 헤드라인. 이러한 것들이 너무 오랜 기간 이어졌으므로, 아직 살아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그 이전의 삶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한다.

『라말라의 경계들에서』(김단우 역, 2013)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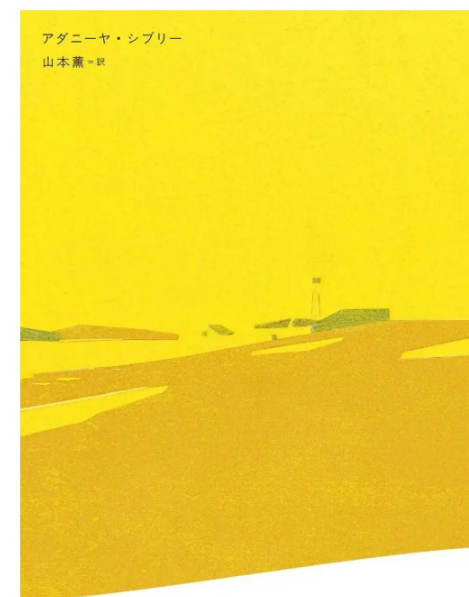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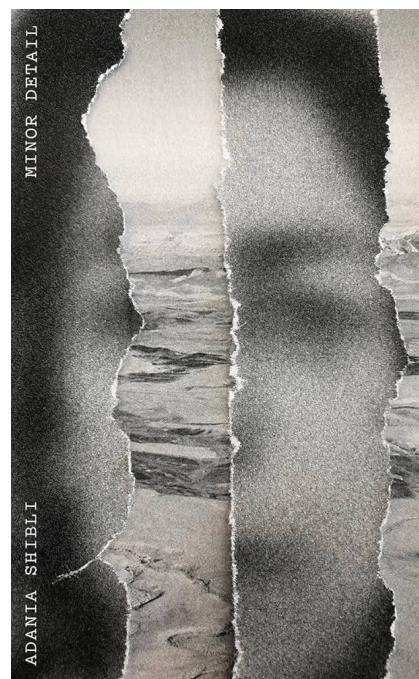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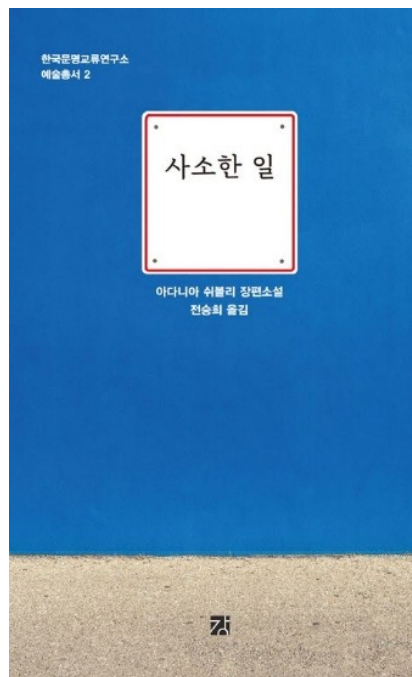
작가 소개

1974년생. 아랍어로 두 권의 장편소설 『접촉』(베이루트, 2002- 불역판도 나옴)과 『우리 모두 공평하게 사랑과는 거리가 멀다』(베이루트, 2004) 발표. 그 작품들로 2001년과 2003년 젊은 팔레스타인 작가 중 그해의 최고 작가에게 주는 알 카탄 상을 받았다. 희곡 『실수』는 런던 뉴컴퍼니 극단에서 2005년 연극으로 상영한 바 있다.



올해 '아시아 문학상'을 수상한 아다니아 쉬블리 팔레스타인 작가가 수상 소감과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손민두

- 2023년 10월 22일에 끝난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에서 LiBeraturpreis 2023 수상이 예정된 팔레스타인 출신 작가 아다니아 쉬블리의 소설 《사소한 일》(minor Detail)의 시상식이 취소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후, 주최 측이 이스라엘과 연대를 표하며 작가에게 일방적으로 시상식 참여 취소를 통보한 것이다.
- 이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아니 에르노, 올가 토카르추크 등 세계적 문학가들이 도서전에 항의했다. 한국에서도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표한 김남일 작가 등 문인 175명이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노동자연대)



とるに足りない細部

河出書房新社
MINOR DETAIL / تفصيل ثانوي

- 소설의 제1부는 1949년 이스라엘 군대가 한 베두인 소녀를 집단으로 강간하고 살해한 사건을 다루지만, 작가는 새삼 그 사건을 폭로하고 비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작가는 주둔 부대 소대장의 일거수일투족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세밀히 그려 보이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가 얼마나 매사에 치밀하고 자기 몸의 청결과 부대 관리에 충실한 사람인지가 드러난다. 그러나 실상 조그마한 벌레에 물린 이후 그의 몸에는 고름이 속으로 점점 번지고 있었다. 이는 식민 지배자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비유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나아가 그토록 치밀하게 부대를 관리하던 그가 사막에서 만난 베두인족을 어떤 합리적인 증거 하나 없이 사살해 버리고 만다. 이를 통해 독자는 그의 세계가 얼마나 편협하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게 된다.

- 제2부에서는 라말라에 거주하는 한 지식인 화자가 우연히 자기가 태어난 날짜에 있었던 베두인 소녀의 죽음에 대해 알게 되면서 자석에 끌리듯 그 사건에 빨려 들어간다. 그 과정에서 소녀는 이스라엘군의 야만을 폭로하기 위해 보태는 또 한 명의 증인으로만 역할이 규정되지 않는다. 희생자인 소녀의 죽음을 새삼 애도하는 것도 소설의 목표가 아니다. 작가는 그 죽음의 현장을 홀린 듯 찾아가는 화자의 여로를 통해 이제껏 역사에서 완벽하게 배제되었던 소녀에게 목소리를 되찾아주고 싶었을 것이다. 물론 그 일은 실패했다. 화자는 어떤 진실도 더 이상 캐내지 못했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어처구니없이'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 그렇게라도 하는 노력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존재 의미가 아니겠는지, 작가는 독자에게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16. 타밈 알 바르구티(1977~)

- 예루살렘의 시인



팔레스타인 작가이자 시인인 무리드 알 바르구티 와 이집트 작가인 라드와 아슈르의 아들로 카이로에서 출생. 그의 아버지는 캄브 데이비드 혐정 이후 이집트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타밈은 휴가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 부다페스트에 살고 있던 아버지를 방문하곤 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이밀 하비비, 마흐무드 다위시 등의 영향을 받았다. 1999년에 구어체 팔레스타인 아랍어로 된 첫 시집을 출간했다. 2004년에 보스턴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카이로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조교수로서 정치학을 가르쳤고, 또한 베를린 자유 대학교 와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방문 교수로 일했다.

2004년에 그는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시 " Fi l-Qudsi "(سدقلا ي " In Jerusalem ")를 썼습니다. 2007년 시 경연 대회 Amir-Al-Shu'arā]](نار عصلا ريم 시인의 왕자)에서 이 시를 읽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In Jerusalem and Other Poems"는 영어로 번역된 그의 첫 시집이다. 카타르에서 열린 2022 FIFA 월드컵 폐막식에서 연설을 했다.

17. 레파트 알라리르(1979~2023)

- 내가 죽으면 너는 살아서



1979년 가자 시티에서 태어났다.

2001년 가자 이슬람 대학교에서 영어 학사 학위를,

2007년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존 던에 대한 논문으로 2017년 말레이시아 푸트라 대학교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가자 이슬람 대학교에서 문학과 문예 창작을 가르쳤고, 경험 많은 작가와 가자의 젊은 작가를 연결하는 "We Are Not Numbers"라는 조직을 공동 창립했으며, 이스라엘 점령에 맞서는 팔레스타인 저항의 수단으로 스토리텔링의 힘을 홍보했다.

2023년 12월 6일, 알라레르는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침공 당시 그의 형제, 자매, 조카 4명과 함께 가자 북부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

- 내가 죽으면 너는 살아서
내 이야기를 들려줘
내 물건을 팔아 천과 끈을 사서
(기억이 날린 하얀 것으로 만들어줘)
눈에 하얀 눈을 담고
가자 치루어 단가에 있을 아이가
누구에게도
그의 육신에게도
그 차기 자신에게도 마지막 인사를 못하고
포화 속에서 사라져 버린 아빠를 기다릴 때
네가 속마음 내 여이 날아다니는 걸 보며
잠시 능하 천사가 었다고 생각할 거야
아빠를 다신 데려올 천사를
내가 죽어도 희망이 되게 해 줘
이야기가 되게 해 줘 [번역 뉴스페이퍼]

출처 : 더스쿠프(<https://www.thescoop.co.kr>)

참고 자료

- 김남일, <소설로 읽는 팔레스타인 현대사>, SPARROW, 4권 3호,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2024.
- 김남일, <가자 사태, 그리고 팔레스타인 문학>, 『문학인』 제13호(2024년 봄호)
- 계간 『아시아』 제17호(팔레스타인 특집호), 2010년 여름호
- 송경숙, 『팔레스타인문학의 이해』,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 송경숙, 『갓산 카나파니의 삶과 문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5.
- 송경숙 외, 『중동 여성문학의 이해₁』, 한울아카데미, 2004.
- 갓산 카나파니 외 지음, 임헌영 편역, 『아랍민중과 문학』, 도서출판 청사, 1979.
- 수아드 아미리 외 지음, 오수연 편역, 『팔레스타인의 눈물』, 도서출판 아시아, 2006.

[참고] 계간 아시아



팔레스타인 문학 특집

권두에세이

우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다 오수연

좌담

팔레스타인 문학을 빛낸 별들

오수연, 자카리아 무함마드 | Palestine, 마흐무드 아부 하시하시 | Palestine, 바시마 타크로리 | Palestine

단편소설

샤키라의 사진 마흐무드 슈카이르 | Palestine

파드와 두간은 이제 탱고를 추지 않는다 아다니아 쉬블리 | Palestine

난민촌의 총 갓산 카나파니 | Palestine

시

여권 마흐무드 다르위시 | Palestine

중력의 법칙이 불러낸 갈망 파드와 두간 | Palestine

우리 돌아가리 아부 살마 | Palestine

올리브나무 몸통 위에 타우픽 자야드 | Palestine

젯더미 사미흐 알카심 | Palestine

아무 문제없다 무리드 바르구티 | Palestine

산문의 숲

문학과 문자주의 에드워드 사이드 | Palestine

액체적 글쓰기 키파 판니 | Palestine

민담으로 읽는 아시아

초록새 이브라힘 무하위 | Palestine, 샤리프 카나아나 | Palest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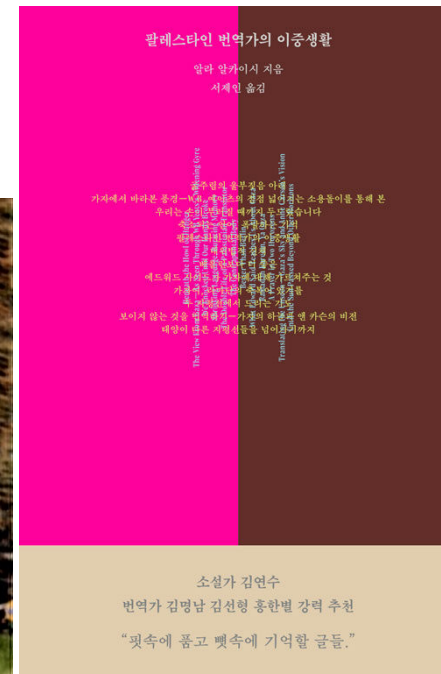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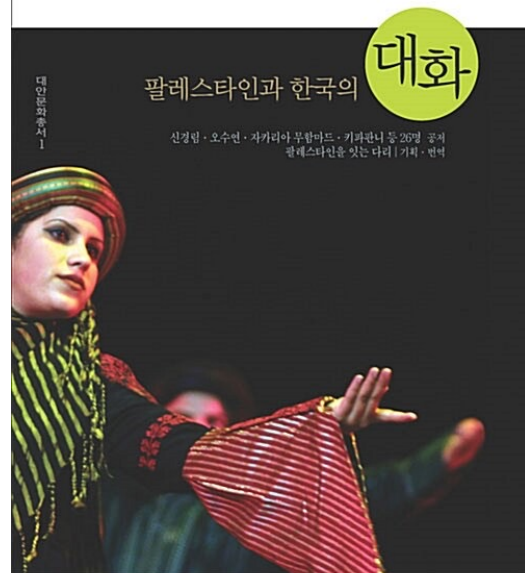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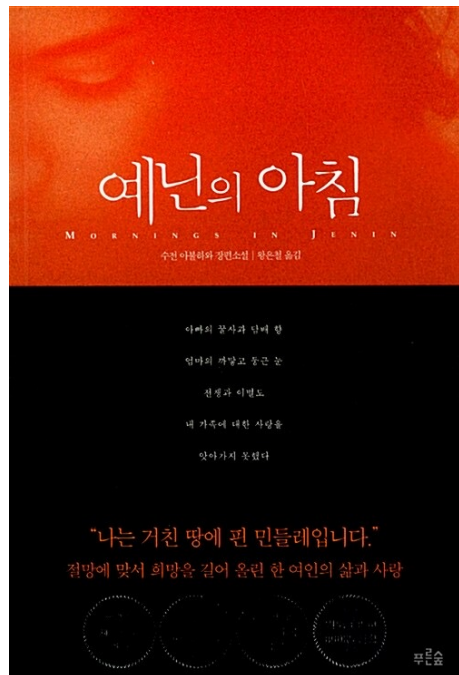
작가의 눈

순교자의 잉크 마흐무드 아부 하시하시 | Palestine

날조 진술 나즈완 다르위시 | Palestine

부록:문학연표

팔레스타인 현대문학연표



팔레스타인 현대문학 연표

- 1917년
 - - 파드와 뚜칸, 나블루스에서 출생. 엄격한 가부장제 집안에서 자라나는데, 시인인 오빠 이브라힘은 초등학교조차 다니지 못한 그녀가 세계와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창문과 같은 존재였다.
- 1935년
 - - 에드워드 사이드, 예루살렘에서 출생. 아버지는 일찍이 미국 국적을 취득. 이로 인해 훗날 사이드는 미국과 아랍세계 사이에 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거듭하게 된다.
- 1936년
 - - 갓산 카나파니, 지중해 연안 악카에서 출생.
- 1942년
 - - 마흐무드 다르위시, 갈릴리 인근 알 비르와 마을에서 출생.
- 1946년
 - - 파드와 뚜칸, 평전 [나의 오빠 이브라힘] 출간.

- 1948년
- - 나크바(시온주의자들의 침공으로 인한 이재앙과 이스라엘 국가 건설). 이로써 팔레스타인문학은 팔레스타인 영토 안에 국한되지 않고 망명자들을 포함한 전체 팔레스타인인들의 문학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기 시작.
- - 시인 압둘 라힘 마흐무드, 시온주의자들의 침공에 맞서 싸우다 아샤자라 전투에서 35세 나이로 전사.
- 1956년
- - 제2차 중동전쟁 발발.
- 1960년
- - 마흐무드 다르위시, 첫 시집 [날개 없는 새들] 출간.
- 1961년
- - 갓산 카나파니, 첫 단편집 [12호 병상의 죽음] 출간.
- 1962년
- - 마흐무드 다르위시, 한 낭송회에서 가자 지구에 관한 시를 낭송했다는 이유로 투옥. 이후에도 수 차례 투옥 당함.

- 1963년
 - - 갓산 카나파니, 장편 [불별 속의 사람들]과 단편집 [슬픈 오렌지의 땅] 출간. 특히 [불별 속의 사람들]은 영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일어, 한국어 등 수십 개 외국어로 번역 소개됨.
- 1964년
 - - 타우픽 파이야드, 점령지내 최초의 소설로 간주되는 [불구자들] 발표.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판매금지 조치를 당함.
- 1966년
 - - 갓산 카나파니, 팔레스타인 저항시 운동을 소개하는 비평 [점령하 팔레스타인의 저항문학: 1948-1966년] 발표.
 - - 마흐무드 다르위시, 감옥에서 시집 [팔레스타인의 연인] 집필하여 비밀리에 출간.
- 1967년
 - - 타우픽 파이야드, 최초의 팔레스타인 현대 희곡으로 간주되는 [광기의 집] 발표.
- 1968년
 - - 사미흐 알 카심, 첫 시집 [뇌조를 기다리며] 출간.

- 1969년

- - 갓산 카나파니, 장편 [하이파에 돌아와서]와 [싸아드 엄마] 발표. 마르크스레닌주의 노선의 팔레스타인 인민해방전선(PELP) 대변인으로 활동 개시.
- - 이밀 하비비, 장편 [6부작- 그 여섯날] 출간.
- - 마흐무드 다르위시, 아시아아프리카작가회의로부터 로터스상 수상.
- - 타우픽 파이야드,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체포당해 1974년까지 악명 높은 샤타 감옥에 수감.

- 1972년

- - 갓산 카나파니, 자동차에 장착된 폭탄이 터지면서 사망.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의 소행.

- 1973년

- - 시인이자 저널리스트인 카말 나세르, 망명지인 베이루트의 아파트에서 암살당함.
- - 마흐무드 다르위시, PLO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당국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함.

- 1974년

- - 이밀 하비비, 장편 풍자소설 [싸이드 아브 나흐스 알 무타샤일의 실종에 얽힌 괴이한 사건들] 발표. 점령지내 아랍 소설문학 최대의 수확으로 간주.

- 1975년
 - - 아시아아프리카작가회의, 갯산 카나파니에게 로터스상 수여.
 - - 사하르 칼리파, 장편 [가시선인장] 발표.
- 1977년
 - - 마흐무드 다르위시, 이 한 해에만 전 아랍권에서 백만 권 이상의 시집이 판매됨.
- 1978년
 - - 자브라 이브라힘 자브라, 장편 [왈리드 마스우드를 찾아서] 발표.
 - -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 출간. 포스트콜로니얼 연구의 신기원을 이루었다는 평가.
- 1981년
 - - 자카리아 무함마드, 시집 [마지막 시들] 출간. 이후 그의 시는 현대 아랍시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게 된다.
- 1985년
 - - 파드와 두간, 자서전 [험난한 여정] 발표.

- 1990년

- - 이밀 하비비, PLO가 주는 알 쿠드 상 수상.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이 자국내 아랍문학에 주는 상도 수상. 이 때문에 아랍 지식인 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일다. 하비비 자신은 "상을 통한 대화가 돌이나 총탄을 통한 대화보다 낫다"고 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옹호.

- 1993년

- - 제1차 오슬로 협정이 체결되며 가자 지구와 서안의 제리코(여리고) 시에서 제한적 자치가 허용되자 마흐무드 다르위시, 집행부의 견해에 반대하여 PLO 탈퇴.
- - 에드워드 사이드, [문화와 제국주의] 출간. 찰스 디킨즈, 조셉 콘라드, 러드야드 키플링 등으로 대변되는 19세기 영국의 리얼리즘 소설들이 필연적으로 제국주의 중심문화를 반영한다고 지적.

- 1994년

- - 시인 타우픽 자야드, 나자렛 시 시장이자 이스라엘 의회 의원으로서 제리코에서 아라파트를 만나고 오는 길에 자동차 사고로 사망.

- 1997년

- - 사하르 칼리파, 장편 [유산] 발표. 민족문제와 여성문제로 인한 팔레스타인 여성의 이중적 고통을 잘 형상화했다는 평가.
- - 시인 무리드 바르구티, 자전적 소설 [나는 라말라를 보았다] 출간. 30년간의 망명을 끝내고 귀향하는 내용을 담은 이 책으로 나킵 마흐푸즈 문학상 수상.

- 1999년

- - 에드워드 사이드, 회고록 [설 자리 없이] 출간. 이 책으로 뉴요커상(논픽션 부문) 수상.

- 2003년

- - 파드와 뚜칸, 알 아크샤 인티파다 도중 봉쇄된 나블루스에서 사망.
- - 에드워드 사이드, 사망.
- - 수아드 아미리, [샤론과 나의 시어머니] 출간. 이 작품으로 탁월한 외국문학에 주는 이탈리아의 비아레지오 상 수상. 15개 국어로 번역 소개됨.

- 2004년

- - 아이샤 오디, 1969년 이스라엘에 체포되어 40일 여의 혹독한 고문 끝에 종신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서전 [자유를 꿈꾸며] 출간.
- - 1997년 창단한 라말라 국립음악원, 명칭을 에드워드 사이드 국립음악원으로 바꿈.

- 2006년

- - 사하르 칼리파, 장편 [형상, 성상, 그리고 구약]으로 나킵 마흐푸즈 문학상 수상.

- 2008년

- - 마흐무드 다르위시, 지병인 심장병으로 사망.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도 라말라에서 국장에 해당하는 장례식 거행 후 문화궁전 옆 빈 터에 묻힘. 자치정부는 4종류의 추모 우표 발행.

- 2017년
- 아다니아 쉬블리, 아랍어 장편 [사소한 일] 출간.
- 2018년
- - 사하르 칼리파, 대표작 [가시선진장]으로 서울 은평구가 주관하는 이호철통일로문학상 수상.
- 2020년
- - 자카리아 무함마드, 한국에서 시선집 [우리는 새벽까지 말이 서성이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발간.
- 2023년
- - 아다니아 쉬블리, 장편 [사소한 일] 한국어 번역판 출간. 이 소설로 아시아문화전당이 수여하는 아시아문학상과 독일 리트프롬 상 수상. 그러나 마침 일어난 가자 사태로 인해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최측이 시상을 전격 취소하자 전세계 문인들이 거센 항의의 뜻을 표함
- - 자카리아 무함마드, 라말라에서 사망.
- - 레파트 알라리르, 이스라엘의 가자 침공 당시 폭격으로 사망.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모든 곳, 모든 시간을 향해 열려 있다.”

STORYTELLING PALESTINE

PowerPoint 시작 센터에서 자세히 알아보기 (→)
(슬라이드 쇼 모드에서 화살표 클릭)